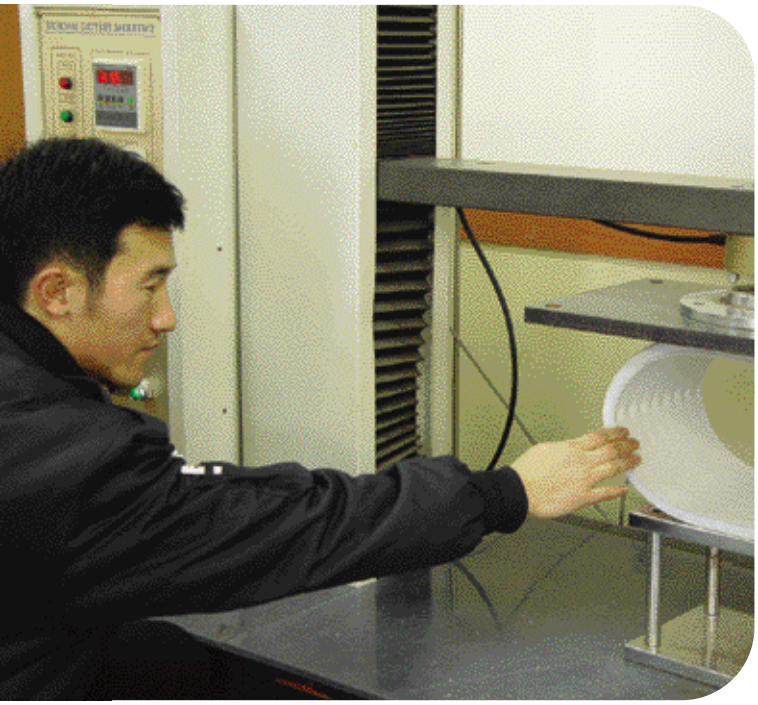
기·업·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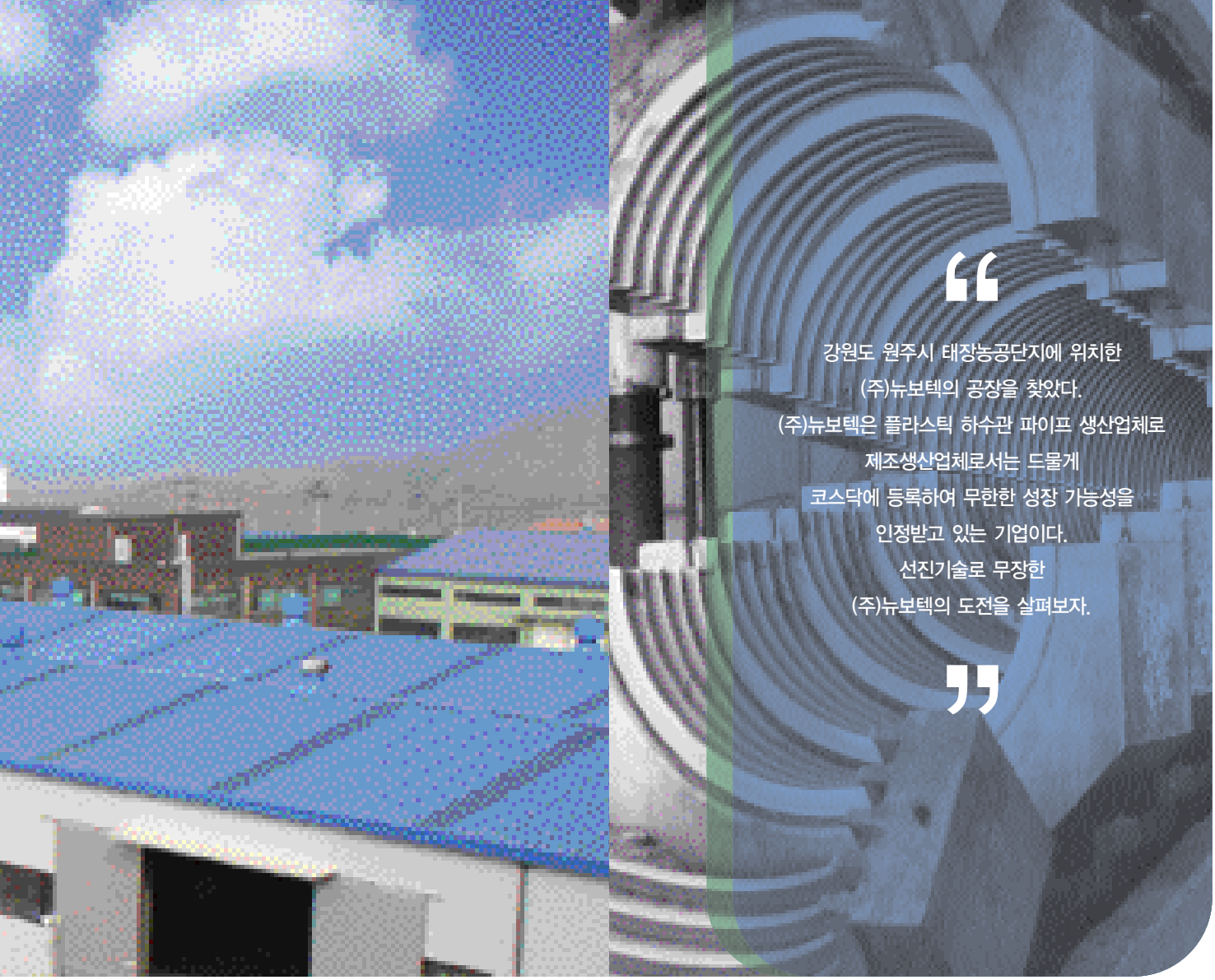
풍부한 기술력으로 친환경을 추구하는 기업

(주)뉴보텍



선진국형 신개념 하수관의 개발과 생산

1990년 창립 이래 14년 동안 플라스틱 하수관 파이프를 생산해온 (주)뉴보텍은 1997년 선진국형 신개념 하수관인 '고강성 PVC 이중벽관'을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함과 동시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고, 이듬해인 1998년에는 제조설비인 코러게이터까지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동종업계의 선두 주자로 앞서나가고 있다. 특히 고강성 PVC 이중벽관의 개발과 생산은 정부로부터 획기적인 신기술로 인정받아 NT마크와 KT마크를 획득하였고, 2000년에는 국내 최초로 KS를 획득하였다. 강원도 원주시 태장농공단지에 위치한 (주)뉴보텍의 공장은 주력제품인 고강성 PVC 이중벽관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제1공장과 고밀도 폴리에틸렌(PE) 이중벽관을 생산하고 있는 제2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호기별로 압출기와 코러게이터, 절단기, 스태커 등으로 구성된 최첨단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각종 시험설비 및 장비를 갖춘 기업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품질력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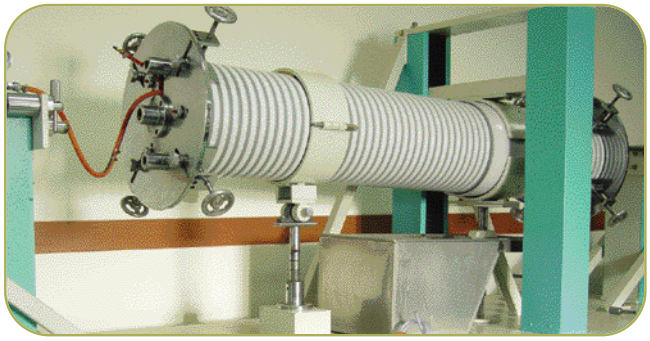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태장농공단지에 위치한
(주)뉴보텍의 공장을 찾았다.
(주)뉴보텍은 플라스틱 하수관 파이프 생산업체로
제조생산업체로서는 드물게
코스닥에 등록하여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선진기술로 무장한
(주)뉴보텍의 도전을 살펴보자.

2003년 매출액 180억원을 달성하여 2002년 대비 9.3%의 성장을 달성한 것에 이어 2004년에도 양적 · 질적으로 성장하는 한해로 보낸 (주)뉴보텍은 2006년까지 1,000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다.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PVC 이중벽관의 시장 잠재력을 볼 때 전혀 불가능한 목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높은 품질력과 기능성을 갖춘 친환경 제품들

(주)뉴보텍은 환경관련 배관재 특히, 하수관과 관련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주력 제품인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부식우려로 사용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콘크리트 흄관이나 주철관 등을 획기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제품으로 주요 고객인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형 건설사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한강수계 하수정비 시범사업' 에 (주)뉴보텍의 고강성 PVC 이중벽관이 핵심자재로 납품되면서 제품의 우수성이 간접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고강성 PVC 이중벽관은 연성관으로 외압강도가 국내 최고 수준으로 부동침하가 발생하는 연약지반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장기간 하중에도 쉽게 변형되지 않는다. 이는 PE 제품보다 초기에는 약 2~3배 강하고, 장기간 경과 후에는 5~7배 강한 것이다. 또한 고무링 · 소켓 접합 방식으로 수밀성이 우수하여 외부관에 균열이 발생하여도 내부관에서 침입수 · 유입수 및 누수를 차단하게 된다. 또한 순수 플라스틱관으로 중량이 가벼워 운반 · 취급 · 설치가 용이한 점도 큰 강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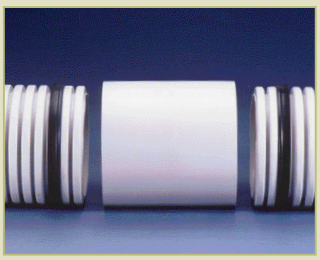
이밖에도 고밀도 폴리에틸렌 이중벽관(HDPE DC PIPE)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파이프 판매에 필수적인 이음관과 같은 각종 부속류 등을 정밀하게 사출화하여 생산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는 하수도용 물받이를 개발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기존 타사의 물받이 제품을 높은 품질력과 기능성을 바탕으로 대체하고 있다. 또한 2005년에는 일체형 소켓을 구비한 고강성 PVC 이중벽관인 'BELL PIPE'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는 고강성 PVC 이중벽관의 기능은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 기능성을 개선한 제품으로 소켓을 일체화시켜 시공이 간편하고 보다 높은 수밀성과 강도를 갖춘, 한마디로 품질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다.

전체 하수관 시장을 향한 도전

전체 하수관 시장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주철관이나 콘크리트 흄관에 비하면 PVC 이중벽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까지 크지

Products

(주)뉴보텍의 대표 생산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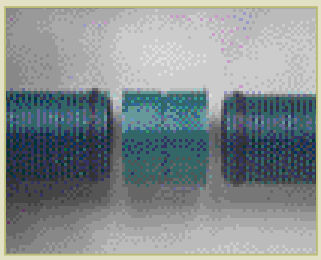


◉ 고강성 PVC 이중벽관

연성 하수관으로 국내 연성관 중 최고의 외압강도를 가지고 있다. 시공성 · 수밀성이 좋고, 지하수 유입 및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순수 프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하여 환경보호에 적합한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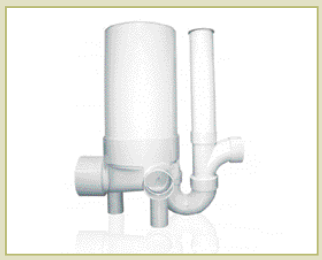
◉ BELL PIPE

기존의 고강성 PVC 이중벽관을 2005년형으로 업그레이드 한 제품. 소켓 일체형으로 연결 방법이 쉽고 작업이 편리하다. 이음부위가 파이프 관과 동일한 재질이므로 물성의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



◉ HDPE 이중벽관

고강성 PVC 이중벽관에 비하여 강도가 다소 떨어지나 고무링에 의한 소켓 접합방식으로 수밀성 · 부동침하에 우수하다. 중량이 가볍고 시공이 간편한 것이 장점.



◉ MEGA 오수받이

아파트, 주택단지, 가정의 하수 및 오수받이. 사출일체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악취의 역류 방지를 위해 U형 곡관과 뚜껑고무링을 채용함.

"상하수도 관련 신기술 및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협회 기업회원의 기업탐방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문의** : 협회 홍보팀 신재택 (Tel. 02-384-8151~4)

않다. 그러나 앞으로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의 하수관들의 경우 관의 파손이나 부식이 토양과 수질의 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반면, 고강성 PVC 이중벽관 제품은 플라스틱관임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강도와 완벽한 수밀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보다 친환경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유이다. 유럽이나 미국, 가까운 일본에서도 플라스틱관이 주철관과 흄관을 대체한 플라스틱관의 점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곧 플라스틱관의 대체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VC 이중벽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뉴보텍의 주요 생산 제품인 고강성 PVC 이중벽관이 2004년 현재 6,500억원에 이르는 전체 하수관 시장을 향해 도전하는 플라스틱관의 대표주자가 될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력과 품질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영업 마케팅으로 국내 하수관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 주) 뉴보텍의 한승희 대표이사 이하 93명의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데에는 쾌적한 작업환경과 직원들을 위한 수준급의 복지시설도 한몫을 하고 있었다. 한 가족처럼 서로를 위하고,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이들의 앞날에 더욱 눈부신 성장이 함께 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나라 하수관 사업도 보다 친환경적이고 기술지향적인 모습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해 본다.

▲ 제1공장 2층에 위치한 체력단련실

Interview

(주)뉴보텍 한승희 대표이사

벤처 회사를 운영하던 한승희 대표가 (주)뉴보텍을 인수하여 운영을 시작한지 3년 정도가 되어간다. 그에게 하수관 제조업이라는 자체가 낯설고 생소한 분야였기에 그의 회사 인수와 경영은 하나의 도전이었다.

"저는 항상 결과를 먼저 생각합니다. 결과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밀고 나가는 것이 제 성격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흔들림없이 밀고 나가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하는 한승희 대표.

IT가 강세인 벤처 사업에서 제조업도 하나의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그의 생각은 맞아 떨어졌다. 현재 (주)뉴보텍은 코스닥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굴뚝기업으로서는 드물게 고성장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숨은 진주로 평가받고 있다. "처음에는 탄탄한 기술력, 우수한 품질의 제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영업력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업계 선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죠."

오랜 역사와 관록을 자랑하는 업계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젊은 사장의 도전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그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면서도 그는 나름대로 공격적인 경영으로 다른 업계와는 차별화되는 기업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승희 대표가 취임한 후 처음 시작한 일이 직원들의 기숙사를 새로 짓고 복지시설을 갖추는 것이었다. 직원들이 불편함없이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서로를 위해주고 하나된 마음으로 움직이는 회사, 그것이 그가 바라는 회사의 모습이고 직원들도 그런 뜻에 다함께 동참하고 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하는 한승희 대표는, 마지막으로 협회가 좀더 강한 구심점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다.

"협회가 잘되어야 우리 업계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협회에 무엇을 바라기 보다는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업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그와 (주)뉴보텍의 약진을 기대해본다.